

## K-조선 수출 총력전 12개 금융기관 총 15조원 공급

- 9개 은행이 중형 조선사 RG 1건씩, 총 9척 발급 ... 총 1조원 규모 수주 지원
- 역대 최초로 시중·지방은행 모두 중형 조선사 RG 발급 참여  
... 5대 시중은행은 11년만에 중형 조선사 RG 발급 재개
- 무보 특례보증 비율 95%까지 확대 ... 은행 보증 부담 1/3로 완화
- 신한은행, 대한조선의 원유운반선에 대해 1호 RG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공동으로 6.17(월)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회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회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하였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

\* RG : 통상 발주처(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선사의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요구

### ▶ (중형 조선사) 9개 은행 9척, 산업은행 6척+α RG 발급 ... 2.3조원 선박수출 지원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해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9개 은행은 既수주한 선박들의 RG 발급기한에 맞춰 각각 약 3천만불, 총 2.6억불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7억불 규모(약 1조원 상당)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무보는 금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었다.

또한, 산업은행에서도 중형 조선사가 既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6억불의 RG를 발급할 예정이고, RG 발급에 따라 총 5.7억불(약 7,500억원)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선박 인도 일정에 따라 1.6억불의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 (시중은행-중형조선사 1호 RG) 신한은행, 대한조선에 1호 RG 발급

시중·지방은행이 모두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이며, 특히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하였다. 이날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백만불)에 대한 1호 RG를 발급하였다.

▶ (대형조선사) 5대 시중은행·산은·수은·기은 올해 총 14조원 신규 RG 한도 제공

한편,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RG 발급을 분담해 왔다. 다만, 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인해 대형 조선사의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8개 은행은 현대계열 3사(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하였다.

\* 매년말 클락스 선가지수(88.1월=100) : (20) 125.6 → (21) 153.6 → (22) 161.8 → (23) 178.4

업무협약식에 이어, 안덕근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참석자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조선사 대표들은 정부의 기술개발(R&D) 지원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주확대에 따른 인력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한 것은 K-조선 경쟁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번에 재개된 시중은행의 중형사 RG 발급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주-건조-수출 쉰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는 한편,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서기관	김 효 (044-203-4041)
			사무관	윤인식 (044-203-4049)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염현호 (044-203-433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2-2100-2865)	

## 참 고

##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4. 6. 17.(월) 09:00~10:00,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 참석 : 산업부장관·금융위원장 (공동주재)
  - (은행) 국민이재근 행장, 하나이승열 행장, 신한정상혁 행장, 농협이석용 행장, 경남예경탁 행장, 광주고병일 행장, 우리기동호 부행장, 부산손대진 부행장
    - \* 우리은행·부산은행은 부행장 참석
  - (공공) 무보장영진 사장, 산은강석훈 회장, 기은김성태 행장, 수은윤희성 행장
  - (기업) HD현대중공업 박승용 사장, 대한조선 김광호 대표, 케이조선 강양수 대표
- 주요 내용
  - (협약식) 9개 은행이 RG 1건씩 총 9건을 발급하고, 이를 위해 무보 특례보증 부보율을 대형사 수준인 95%로 상향
    - \* 은행별 3천만불 내외, 총 2.6억불 규모 RG 발급 → 7억불 규모(1조원 상당) 계약 이행
  - (1호 RG 발급)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프론티어로서 RG 발급 기한이 임박(6.27일)한 대한조선 수주건에 대해 1호 RG를 발급
    - \* 발주처 벨기에 Euronav社(운영선대 총 57척 등 선복량 기준 벨기에 1위 탱커선사), 유조선 1척(Suezmax), 수주액 87백만불, RG 31백만불(무보 특례보증 29백만불)
- 세부 시간계획 ※ 간담회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협약식	09:00~09:05	5' ▶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 배경 설명)	
	09:05~09:10	5' ▶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9개은행·무보
	09:10~09:15	5' ▶ 시중은행-중형조선사 1호 RG 발급	신한은행 → 대한조선
	09:15~09:18	3' ▶ 장내 정리	
간담회	09:18~09:28	10' ▶ 간담회 모두말씀 (산업부→금융위)	산업부장관·금융위원장
	09:28~09:30	2' ▶ 모두말씀 후 기자단 퇴장	
	09:30~09:33	3' ▶ 조선산업 현황 및 금융지원 방안	산업부 제조산업국장
	09:33~09:36	3' ▶ 조선업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09:36~09:57	21' ▶ 은행·무보·기업 발언 (각 3분)	산은수은신한경남, 무보, 현중대한
	09:57~10:00	3' ▶ 폐회	